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Buysignal**

**거시경제와 시황 분석**

**거시경제 시황: 홍길동**

**산업동향: 홍길동**

**주요뉴스: 홍길동**

**투자전략: 홍길동**

**내용 취합 및 검수 : 홍길동**

**미시건대 1년 기대 인플레 4%로 둔화, 긴축 막바지 기대감에 KOSPI 9일 연속 상승**

미국 미시건대 1월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4%로 3개월 연속 둔화. 소비자심리지수는 예상치 상 회. 주식에 있어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짐. 지난주 금통위에 이어 긴축 막바지 기대감으로 KOSPI는 9일 연속 상승 마감. 장중 2,400p를 상회했으나 실적 시즌 진입을 앞두고 개인 현물 매도, 외국인 선물 매 수 규모 축소에 도달에는 실패. 강 달러 종료 기대와 BOJ의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의 조합으로 원/달러 환 율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1,230원대 마감. 외국인은 4일 연속 KOSPI 순매수에 나섬.

**금융주, 중국 리오프닝, 인터넷 강세. 자동차, 기계, 건설 약세**

미국 실적 시즌과 중국 리오프닝, UAE의 대 한국 투자 계획 등 재료가 작용. KOSDAQ은 대체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인 반면 KOSPI는 업종별 등락률 차가 명확하게 나타남. 1) 금융주: 미국 상업은행을 중심으 로 예상 대비 실적 호조를 발표하며 국내 금융주에도 실적 기대감 작용과 주주환원 확대 및 금리 하락으로 배당 매력 부각 등. 2) 중국 리오프닝: 중국 코로나19 확산 정점 기대, 정부의 소비 회복을 위한 추가 정책 지원 추진 및 인민은행의 대규모 공개시장조작 운용 등 경기 부양 기대감 작용. 여행/레저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 3) 인터넷/게임: 중국 플랫폼 규제 완화 지속, 금리 하락에 따른 성장률 반등, UAE의 대규모 투자 계 획에 있어 한국 첨단 산업 수혜 기대 등 복합적인 재료가 작용

**호재가 앞당겨지며 ‘분위기’는 긍정적, 실적 시즌과 Fed-시장과의 시각차도 고려**

글로벌 증시에서도 국내 증시는 빠른 상승세 시현. EWY(미 증시 상장 한국물 ETF) 기준으로 12월 저점 대 비 13% 가량 상승. 중국 조기 리오프닝,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 달러 하락 등 호재가 앞당겨지며 동시에 작 용한 영향. 지난주부터 4Q22 실적 프리뷰에 들어가며 12개월 선행 EPS는 전주대비 3.6% 하향 조정. 이익 전망치 추가 하향 여지와 긴축에 있어 Fed-시장과의 시각차도 고려해야할 시점

**바이시그널 10기 1조/ 2023.01.01**

**거시경제 시황**

|  |  |
| --- | --- |
| 바이시그널 펀드 포트폴리오 | |
| LG에너지솔루션 | 50% |
| 삼성SDI | 20% |
| 포스코케미칼 | 15% |
| 에코프로비엠 | 15% |
|  |  |

***주요 지수***

**산업 동향**

|  |  |
| --- | --- |
| **국내증시** | |
| KOSPI | 2,399.86 |
| KOSDAQ | 716.89 |
| **글로벌 증시** | |
| Dow | 34,302.61 |
| NASDAQ | 11,079.16 |
| S&P500 | 3999.09 |
|  |  |

**4Q22 Preview: 주가에 이미 반영**

2022년 4분기, 2차전지 셀 및 소재 기업 대부분 어닝 쇼크 예상. 성과급 및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 3분기 높은 원재료 비용 반영 등으로 인한 스프레드 축소 영향이 가장 컸음 다만, 실적은 2022년 12월 말부터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왔음. 2023년 1월 16일 유안타증권 커버리지 기준, 2023년 EV/EBITDA 평균 멀티플 18배, 2024년 13배 수준까지 하락. 2025년까지 연평균 34% 이상의 성장률 고려 시, 밸류는 충분히 낮아진 상태

**2023년, Q 증가에 집중하라**

2022년 셀 주도주 LG에너지솔루션 주가 상승 요인은 ASP 상승 및 환율 영향, IRA로 인한 수주 확대에 있었음. ASP 상승 및 환율 제외하면, Q 증가는 10% 내외 수준 2023년 원재료 가격 안정화로 인한 ASP 하락, 환율 하락, 테슬라 가격 인하로 인한 완성차 OEM들 가격 인하 가능성 등으로 인해 2차전지 섹터에 대한 고민이 높아진 상황. 그러나 Li 중심 원재료 가격 및 환율 하락 제한적, OEM 가격 인하 시, Q 증가 기대로 외형성장 폭 2023년에 더 클 것. 또한 LG에너지솔루션 worst case 시나리오로 Li 가격 $30,000/t, 원달러 환율 1,200원, 유럽, 중국 가동률 2022년과

**Appendix**

**투자 전**

**투자 전략**

**주요 뉴스**

**기사 출처**

**기타 자료**

**4Q22 Preview: 주가에 이미 반영**

2022년 4분기, 2차전지 셀 및 소재 기업 대부분 어닝 쇼크 예상. 성과급 및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 3분기 높은 원재료 비용 반영 등으로 인한 스프레드 축소 영향이 가장 컸음 다만, 실적은 2022년 12월 말부터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왔음. 2023년 1월 16일 유안타증권 커버리지 기준, 2023년 EV/EBITDA 평균 멀티플 18배, 2024년 13배 수준까지 하락. 2025년까지 연평균 34% 이상의 성장률 고려 시, 밸류는 충분히 낮아진 상태

**2023년, Q 증가에 집중하라**

2022년 셀 주도주 LG에너지솔루션 주가 상승 요인은 ASP 상승 및 환율 영향, IRA로 인한 수주 확대에 있었음. ASP 상승 및 환율 제외하면, Q 증가는 10% 내외 수준 2023년 원재료 가격 안정화로 인한 ASP 하락, 환율 하락, 테슬라 가격 인하로 인한 완성차 OEM들 가격 인하 가능성 등으로 인해 2차전지 섹터에 대한 고민이 높아진 상황. 그러나 Li 중심 원재료 가격 및 환율 하락 제한적, OEM 가격 인하 시, Q 증가 기대로 외형성장 폭 2023년에 더 클 것. 또한 LG에너지솔루션 worst case 시나리오로 Li 가격 $30,000/t, 원달러 환율 1,200원, 유럽, 중국 가동률 2022년과

**4Q22 Preview: 주가에 이미 반영**

2022년 4분기, 2차전지 셀 및 소재 기업 대부분 어닝 쇼크 예상. 성과급 및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 3분기 높은 원재료 비용 반영 등으로 인한 스프레드 축소 영향이 가장 컸음 다만, 실적은 2022년 12월 말부터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왔음. 2023년 1월 16일 유안타증권 커버리지 기준, 2023년 EV/EBITDA 평균 멀티플 18배, 2024년 13배 수준까지 하락. 2025년까지 연평균 34% 이상의 성장률 고려 시, 밸류는 충분히 낮아진 상태

**2023년, Q 증가에 집중하라**

2022년 셀 주도주 LG에너지솔루션 주가 상승 요인은 ASP 상승 및 환율 영향, IRA로 인한 수주 확대에 있었음. ASP 상승 및 환율 제외하면, Q 증가는 10% 내외 수준 2023년 원재료 가격 안정화로 인한 ASP 하락, 환율 하락, 테슬라 가격 인하로 인한 완성차 OEM들 가격 인하 가능성 등으로 인해 2차전지 섹터에 대한 고민이 높아진 상황. 그러나 Li 중심 원재료 가격 및 환율 하락 제한적, OEM 가격 인하 시, Q 증가 기대로 외형성장 폭 2023년에 더 클 것. 또한 LG에너지솔루션 worst case 시나리오로 Li 가격 $30,000/t, 원달러 환율 1,200원, 유럽, 중국 가동률 2022년과

**2023.01.01**